

나주시 농업 산업화·고부가가치화 추진

농생명 산업 핵심 성장동력 육성
브랜드·가공·유통·수출 강화
농촌 인구 유입 등 1022억 투입

나주시가 농생명 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농업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잘 팔리는 농산물', '지속 가능한 농업',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비전으로 브랜드 육성, 가공·유통 혁신, 수출 확대,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농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년이음나주배', '나주들에찬한우' 등 대표 농축산물 브랜드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납평 딸기와 세지 멜론 등 권역별 특화 품목을 명품화해 전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동수동에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과 창업, 기업 연계를 통해 1차 생산 중심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과 수출 확대도 병행한다. 농특산물



나주시장이 인증하는 나주 농특산물 브랜드인 천년이음나주배(왼쪽)와 나주들에찬한우. <나주시 제공>

온라인몰 '나주몰'은 지난해 매출 16억원을 기록했으며, 민선 8기 들어 미국·호주·베트남 등 8개국과 4470만달러 규모의 농식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청년농·후계농 육성,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주 여건 개선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시는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 농촌환경 개선에 총 1022억원을 투입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농촌을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재편해 나주가 대한민국 농업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초록빛 바다목장 '장흥 매생이 양식장' 사진명소로 각광

장흥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으며 전국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이 되면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에는 잔잔한 바다 위로 초록빛 매생이와 어민의 채취 작업이 어우러져 특별한 어촌 풍경이 펼쳐진다.

이 독특한 풍경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 촬영은 주로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을 수 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명, 주말에는 500여명의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덕읍을 찾고 있다.

특히 주말인 지난 17일과 18일에는 1000여명이 웅암마을을 방문해 마을 일대가 사진작가와 동호회원들로 북적였다.



사진 촬영객들의 방문으로 대덕읍 웅암마을 일대가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장흥군 제공>

촬영에 나선 사진작가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푸른빛을 품은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사진 촬영객들의 방문으로 겨울철 한산하던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마을을 찾은 한 사진작가는 "겨울철에는 사진 촬영 소재가 부족한데, 매생이 양식장은 색감과 분위기가 뛰어난 피사체"라며 "웅암마을은 풍경도

아름답지만,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줘 매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병석 대덕읍장은 "대덕읍 매생이는 갈슘과 절본 등 미네랄이 풍부한 겨울철 대표 건강식품"이라며 "사진 촬영객 방문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 연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주민편익사업 조기 발주 합동집무

225건 현장 방문 설계도서 작성

장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장성군민회관에서 주민편익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집무는 영농기 이전에 주민 편의 증진 및 영농 여건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 사업은 총 225건으로 총사업비 76억3800만원 규모다. 전담반은 군 건설과 및 읍면 시설직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주민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을 결정

한 뒤 설계도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합동집무 기간 중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는 2월부터 공사 계약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 발주 및 착공 시기는 2~3월께로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적기에 주민편익사업 설계를 마무리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공 영농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붉은 말의 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말띠 기부자 추천 통해 포인트 지급

담양군이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담양 딸기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선착순 기부자 200명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권이, 말띠 기부자 26명에게는 1만원권이 주어진다.

신규 답례품인 '담양 딸기'를 알리기 위해 기부순번이 26번, 126번, 226번, 260번, 266번에 해

당하는 기부자 5명과 무작위 추첨자 15명 총 20명에 고품질 담양 딸기 2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 사항은 담양군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다.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기부일로부터 1년간 주요공영 관광지인 죽녹원, 소재원,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한재골 수목정원에 대해 무료 입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병영면사무소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병영상업고 관계자와 병영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병영상업고 축제 수익금 이웃돕기 기탁

강진 병영상업고등학교(교장 서현린)가 스스로 만든 배움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병영상업고 학생들은 최근 성금 66만7000원을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했다. <사진>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축제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도예 창업 동아리 '설성흙사랑' 학생들은 병영성 축제 기간에 부스를 운영하며 도예 소품 제작·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축제인 '설성 축제'에서도 학생

들은 자율적으로 부스를 기획·운영해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 역시 학생자치회의의 논의를 거쳐 성금으로 더해졌다.

병영상업고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상업계 특성고로 학생들이 판매·마케팅·재고관리 등 실무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를 개인의 결과물로 남기기보다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지역에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함평군 '전 세대 생애주기 복지 패키지' 가동

정주 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응

함평군이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를 추진한다.

함평군은 전입장려금과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출산·양육, 교육, 노인 의료 지원을 강화해 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단순한 전입 유도에 그치지 않고, 아이·청년·어르신 등 전 세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

활할 수 있도록 주거·양육·교육·의료 지원을 강화해 정착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입 가구의 주거와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입장려금을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주택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이자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째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최대 1000만원까지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